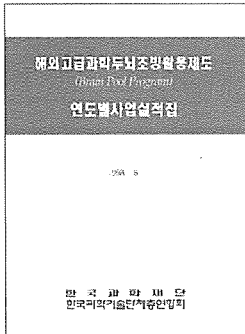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 큰 성과 거둬

Brain Pool 연도별 사업실적집 발간



한국 과학 기술단체 총 연합회 (회장: 최형섭)는 지난 94년부터 시행해온 해외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제도(Brain Pool)사업의 연도별 사업실적집을 발간했다.

93년 7월 '신경제 5개년계획' (기술개발전략부문)에 의해 그 계획이 수립된 이래 94년 2월부터 시행된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제도는 세계적인 해외과학기술자를 국내연구개발현장에 투입하여 연구개발수준을 높임으로써 선진국들의 핵심기술 이전기피 등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타파하고 연구활성화 분위기를 조성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사업실적집에 따르면, 과충은 94년부터 98년 상반기까지 모두 1천3백76개의 과제신청을 받아 이중 4백8개 과제에 대한 해외고급과학자 4백8명을 선정하여 초빙하고 지원하였다. 이들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 1백19명, CIS 1백7명, 중국 1백명 등 총 26개국으로부터 초빙되었으며, 활용기관별로는 16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2백23명 (54.7%),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21개소에 1백45명 (35.5%), 국공립 연구기관 11개 기관에 15명 (3.7%) 등 총 66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충은 동사업의 99년도 제1차 과제신청을 98년 10월16일까지 접수한다. (문의 과충 국제협력팀 02-553-2181 ex)136)

과학기술토론회 개최

“과학기술 전문행정인력에 의한 국정운영이 왜 필요한가”

과충은 9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정보통신포럼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공동주최로 “과학기술 전문행정인력에 의한 국정운영이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형섭 과충회장의 격려사, 정호선의원(국민회의)의 축사와 전무식한림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토론으로 이어졌으며, 김은영 KIST연구위원, 이기준 한국공학원장, 이상희의원(한나라당), 채영복 과충정책연구위원장, 김명자 숙명여대교수, 이만의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권오갑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김균섭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과학기술인테니스대회 10월 23일

과충은 10월 23일 올림픽테니스코트에서 제18회 과학기술인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

회원단체는 물론 모든 과학기술관련기관이 참가할 수 있으며 10월 10일까지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 문의 : 과충 총무팀 02-553-2181 ex)124

특허출원 신규성인정 학술단체지정서 수여식

과충 회원 학술단체에 대한 특허청의 학술단체지정서 수여식이 9월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최형섭 과충회장, 유영기 특허청심사2국장 및 회원단체 관련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여식에서는 2백78개 회원학술단체 대표들에게 특허출원 신규성인정 학

술단체 지정서가 수여되었고, ‘학술단체지정제도’ 설명회가 있었다.

